

# 《 \_\_\_\_\_\_한문\_토사구팽 》

하이에듀

<b>주제</b>	<b>토사구팽의 뜻과 유래</b>
<b>요약</b>	토사구팽은 토끼 토(兔), 죽을 사(死) 개 구(拘), 삶을 팽(烹)의 4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표기된 한자를 풀이해보면 토끼사냥이 끝나면(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필요할 경우는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 없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이나 정치에서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비난을 받고, 굶은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잘린다거나 좌천되는 경우에 토사구팽당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 1. 개요

### 모양, 뜻, 소리, 풀이

兔(토끼) 토 : 긴 토끼 귀와 짧은 꼬리를 본떠 토끼라는 뜻을 가진 글자

死(죽을) 사 : 죽을사변(歹, 殳)은 산산이 흩어지는 뼈를 나타냄.

여기에 사람 인(人) 변형 글자 비(匕)를 더해 사람이 “죽음”이라는 뜻.

사람 인(人) 변형 글자 비(匕)를 더해 사람이 죽는다는 뜻

狗(개) 구 : 개의 개사슴록변(犭, 犬)과 변과 소리를 나타내는 구(句)로 이루어진 글자

烹(삶을) 팽 : 솥을 본 떠 삶는다는 뜻의 형(亨)과 불화발(灬, 火)로 이루어진 글자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그 사냥개는 잡혀서 삶아진다는 뜻.

원래는 狡兔死而良狗烹(교토사양구팽)의 준말로 할 일이 없는 사냥개는 아무리 훌륭해도 쓸모없는 존재가 됨을 이르는 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람이나 도구를 이용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목적에 이용된 도구나 사람은 쓸모없게 되어 냉정하게 배척되거나 제거된다는 의미다.

간단히 뒷글자 팽만 따서 팽하다, 또는 팽을 당하다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냉혹함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 2. 직역과 의역

### 직역

- 나는 새를 모두 잡고 나면 좋은 활은 감추어진다.
-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 적국을 깨뜨리면 지혜로운 신하는 버림받는다.

이 모든 경우가,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의역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를 다 하면 가차 없이 버려진다는 뜻

- 득어망전(得魚忘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잡던 통발은 새까맣게 잊는다. 자신이 바라던 뜻을 이루고 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것을 잊어 버린다는 말. 요즘은 토사구팽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나, 원래 가지고 있는 속 의미는 자신이 바라던 뜻을 이룬 후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것들에 애착을 가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

### 반대말

- 난망지택(難忘之澤)

잊을 수 없는 은혜.

-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 각골난망(刻骨難忘)

입은 은혜의 고마운 마음이 뼈에까지 사무쳐 잊히지 않는다는 뜻.

## 3. 유래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 유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초한지’입니다. 중국의 패권을 두고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에 관한 이야기이며 결국 유방은 ‘한신’이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중국전체를 통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유방은 한신의 능력이 향후 자신을 위협하게 될까 두려워 꾀를 씁니다.

종리매라는 인물은 한신의 절친이자 초나라 항우의 부하였었습니다. 초나라가 멸망하고 한신은 절친 종리매를 숨겨주었는데 유방이 한신을 체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리매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고 한신은 종리매의 목을 가지고 유방에게 갖는데 오히려 강등이 되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한신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살아지듯 천하가 통일되니 이제 내가 살아지는구나”라며 한탄을 하게 되는게 토사구팽의 유래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사성어로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가 있습니다.

#### 4. 느낀점

최근 정치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만큼 또 그러다보니 뉴스나 기사에서도 종종 많이 보든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하기도 하는 이것 또한 토사구팽에 해당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본질을 따지자면 당연한 논리로 보이지만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때는 이런 토사구팽은 절대 지양해야 할 선택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리 추구의 본질을 떠나서 인간적이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게 과연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조직의 성공이 직원에게는 위기란 말이 참 비극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역사를 통틀어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인데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게 남의 재주를 빌려쓰고 성공 후에는 버리는 것, 사람이 가장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재주를 빌려주고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조건이고 다른 한쪽에는 교훈이 되는 셈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피치못할 상황에 그 길을 무조건 가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무조건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까?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 됨을 알지만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진정 찾으려 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안정된 길만을 가서는 절대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